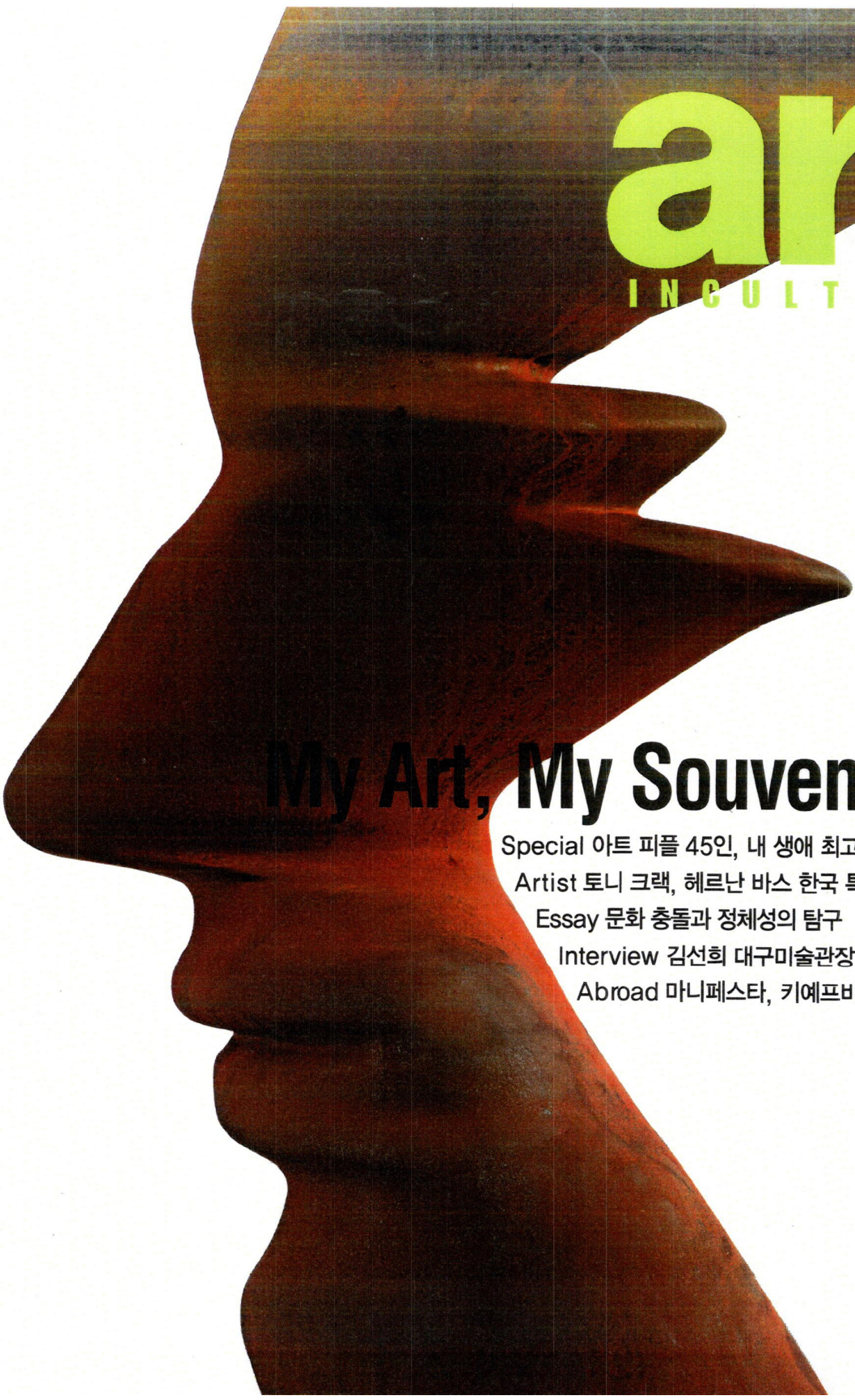




**art**  
INCULTURE

2012 7

## My Art, My Souvenir

Special 아트 피플 45인, 내 생애 최고의 기념품

Artist 토니 크랙, 헤르난 바스 한국 특별전

Essay 문화 충돌과 정체성의 탐구

Interview 김선희 대구미술관장

Abroad 마니페스타, 키예프비엔날레 취재



9 771599 137002 07  
ISSN 1599-1377



## 관절 인형 부동켜 안은 남녀

2011년 1월 인도 뉴델리 다운타운, 여행자들이 한가로이 어슬렁거리는 방길 한쪽에서 좌판에 조악한 물건들을 펼쳐 놓고 한 청년이 뭔가를 팔고 있었다. 좌판 앞 땅바닥에서 뭔가(?)가 메뚜기처럼 요리조리 폴짝대는데, 자세히 살피니 크기가 손가락만한 남녀 인형이 서로를 부동켜안고 마치 살아 있는 듯이 바닥을 뒹굴고 있는 것이다. 호기심이 발동해서 좀더 관찰해 볼 요량으로 쭈그리고 앉자마자 '그럼 그렇지' 하며 입에서 김새는 소리가 빠져 나왔다. 가느다란 낚싯줄에 매달린 관절 인형이 청년의 손놀림에 따라 요리조리 뒹굴었던 것이다. 어둠 때문에 낚싯줄이 보일 리 없으니 마치 스스로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듯한 뻔한 수법이 어리석고 호기심 많은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이다. 한 순간, 영감 비스무리한 것이 내 머릿속에서 휘리릭 지나갔다. 나는 형편없이 조악한 인형 한 쌍을 형편없이 싼 가격에 구매한 후 호텔방으로 돌아와선 눈에 잘 띄는 곳에 뉘어 놓고 주섬주섬 화구들을 펼쳤다. 그리고 잠시 동안 집중해서 관찰과 그리기에 열중한 결과 썩 마음에 드는 그림을 한 장 탄생시키기에 이른 것이다.

안창홍 | 작가

